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1월 6일(주일) 제1228호



## “온 누리에 선교의 바람 불게하소서”

### 1월 6일과 13일 '2019년 선교헌금 작성' 행사 선교헌금 작성, 중보기도, 재능기부로 선교 동참

올해도 어김없이 온누리의 새해는 선교와 함께 시작한다. 현재 온누리교회 파송선교사는 77개국 900여 명이다. 온 누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가장 든든한 힘”이라면서 “급변하는 선교지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우리가 온누리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오늘(6일)과 다

음 주일(13일) 실시되는 2019년 선교헌금 작성 행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헌금은 물론이고 중보기도와 재능기부로 동참할 수 있다.

2019년 선교헌금 작성 행사에는 예배에서 나눠주는 작성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동이체(CMS)나 헌금봉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규, 증액, 헌금봉투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체크하면 된다. 자동이체로 후원하고 있는 성도들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헌금봉투로 후원하고 있는 성도들은 작성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에도 표시해야 한다.

중보기도나 재능기부로 후원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해당란에 체크하면 된다. 또한 중보기도로 후원하는 성도들은 목요선교예배, 기도편지, 중보기도모임 등에 참석하는 것도 좋다. 목요선교예배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비전홀에서

드린다. 선교사들의 간증과 선교지의 기도제목을 나누는 예배이다. 기도편지는 2000선교본부에서 제작하는 <ON편지>와 두란노해외선교회에서 제작하는 <TIM Prayer>가 있다. 기도편지를 활용하면 선교사들의 생생한 삶과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 2000선교본부와 성도들이 운영하고 있는 요일별, 지역별 중보기도모임에 참석해도 좋다. 재능기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이다. 국내외에서 선교사 케어, MK교육, 번역, 통역, 자문 등 다양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다.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제주

Acts29훈련센터 가동, 추방 선교사 케어, 여름 아웃리치 업그레이드, 전 세계 선교단체 협력 네트워크 확충 등을 위하여 힘차게 사역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제주Acts29훈련센터 기공, 2000번째 선교사 파송 등을 통해 지역과 융합하고, 열방과 함께하는 선교를 이어왔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에 힘입어 정말 열심히 선교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도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 헌신을 부탁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문의: 02-795-9085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패션(Passion) 2019’ 참가자 모집

차세대사역본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예배캠프 ‘패션(Passion) 2019’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소년 예배캠프 ‘패션(Passion) 2019’는 한동대학교 효암채플실에서 ‘School Changers’를 주제로 막 오른다. 1차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양재, 도곡, 수원, 부천, 강동, 평택, 양지, 안산M센터 소속 청소년, 2차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포항 및 경상지역 청소년과 교사, 3차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빙고, 대전, 인천, 남양주, 서산 및 태안 온누리교회 소속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2차는 홈페이지(www.onnuri.org/passion2019), 1차와 3차는 차세대 각 부서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3215-3523

### 2018년 연말정산 안내(기부금영수증)

#### 온라인 출력 또는 우편발송 요청 가능

온누리교회 기부금 영수증은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온라인 출력 또는 우편발송 요청 가능하다. 직접발급은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화~금, 주일)에서 할 수 있다.

CGNTV, NGO 더멋진세상, 월드비전, 캠페션 기부금 영수증은 별도

로 발급한다. CGNTV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에서 7일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 CGNTV 02-796-2243  
www.cgntv.net

NGO 더멋진세상 02-2271-2248  
www.abetterworld.or.kr

### 온누리교회 조직도 홈페이지 게재

‘2019년 온누리교회 조직도’는 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 1월 13일부터 게재됩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019 온누리교회 조직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주(1월 6일자) 신문은 ‘2019년 온누리교회 조직도’ 제작 관계로 8면을 제작했습니다.



## “온 누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온누리교회 시무예배, 13개 협력기관 800명 참석



온누리교회와 13개 협력기관이 2019년 시무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온누리교회와 13개 협력기관이 시무예배를 드리고 2019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지난 1월 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 온누리교회 시무예배에는 온누리교회와 13개 협력기관(선교재단, 복지재단, Acts29비전빌리지, CGNTV, 두란노,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KIBI, 에셀선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 NGO 더멋진세상, 온누리M미션) 임직원 800명이 참

석했다.

2019년 시무예배는 정진호 장로 대표기도, 각 기관 소개 및 구호제창,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온누리교회와 13개 협력기관들은 각 기관의 올해 비전과 포부를 담은 구호를 힘차게 제창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성령의 불과 바람이 온누리교회와 각 기관에 불어

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박정선 간사(대학청년부)는 “새해에는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매순간 분별력과 사랑을 구하며 동역자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했고, 주영희 아나운서(CGNTV)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세밀하게 반응해 주의 뜻대로 한결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군교회에서 온 편지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 각리에 소재한 55탄약대대 군인 소망교회를 자비량으로 섬기고 있는 문정용 목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인 소망교회는 노후 된 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건축된 지 30년이 넘는 건물은 리모델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고, 단열이 되지 않아서 창년 장병들이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배당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상급부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지원의 우선순위에 밀려 보수비용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요청 후 상급부대로부터 예산 1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통해 하나님께서 재건축을 시작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 예산과 저희 가족의 헌신, 주변의 미미한 모금으로는 재건축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상급부대에서 받은 예산은 2018년 내에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던 중 군인 소망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남

양주 온누리교회 진접다락방장 이진택 집사님의 제안으로 온누리신문에 군인 소망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건축후원 헌금이 입금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건축비용의 70%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5일 재건축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 건축된 예배당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이끄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군인 소망교회 재건축에 헌금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인 소망교회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계속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의: 010-4248-3033

/ 문정용 목사(군인 소망교회)

### CGNTV 특집다큐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

CGNTV가 1월 10일과 11일 오전 9시 30분 특집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을 방영한다.

CGNTV 특집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에서는 스포츠 선교단체 FCA 사역을 소개하고, 야구선수 커쇼와 야구감독 힐만 등 FCA 출신 스포츠 스타들의 신앙고백을 들려준다. 또한 스포츠를 매개로 한 선교가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지를 살펴보고, 차세대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 두란노아버지학교 ‘파더블레싱 2019’

두란노아버지학교에서 ‘파더블레싱 2019’ 행사를 1월 12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개최한다. 파더블레싱 2019는 두란노아버지학교의 새해 비전인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 끝까지 가는 아버지운동!’을 선포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전 세계 두란노 아버지학교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문의: 02-2182-9100

## 아름다운동행, ‘원데이 부부특강’

### 2월 1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

가정사역본부 아름다운동행사역팀이 부부들을 위한 ‘원데이 부부특강’을 실시한다. 2월 16일 오후 3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이날 부부특강에서는 가정회복 프로그램 전문가 박성덕 소장(연리지가족부부연구소)이 강의한다. 박성덕 소장은 EBS ‘부부가 달라졌어요’, 두란노아버지학교,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부부관계 상담 및 회복치료 전문가이다. 이번 부부특강에서 박 소장은 부부갈등을 정서적 친밀감(연합)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성경적 원리를 제시할 예정이다. 친밀한 부부 관계를 꿈꾸는 부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1만 원. 선착순 200명 모집한다.

문의: 010-9041-5538

/ 정현주 기자

## 금요회복예배 1월 특강 ‘관계의 회복’

### 양지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회복여행’도 개강

금요회복예배 1월 특강이 지난 4일 개강했다. 주제는 ‘관계의 회복’이다. 금요회복예배 1월 특강은 오는 1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특강에서는 관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독려하는 강의가 이어진다.

11일 박재연 대표(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통’, 18일 김지홍 교수(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공감’, 25일 이훈 목사(Pakistan Global Institute)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한다.

한편 회복모임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회복여행’이 오늘(6일)부터 7월 28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2시 양지 온누리교회 캠펠홀에서 진행된다.

/ 권찬송 기자

## 선교사를 위한 기도제목

이요한, 안드보라 선교사는 중동 E국에서 난민들을 위한 교육과 블루버드 찬양팀을 섬겼다. 지난 2017년 이요한 선교사가 대장암으로 판명을 받았다. 이 선교사는 수술 후 항암 치료와 주기적인 검사를 위해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으며, 안드보라 선교사는 선교지를 오가며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1. 이요한 선교사가 대장암 치료를 위해 한국에 머물러 있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2. 안드보라 선교사가 남편의 병환 중에도 선교현장에 들어가 블루버드찬양팀을 섬길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3. 선교지에서 만난 현지인들과 난민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여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삼게 하소서.

##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 교적번호 / 성명 / 공동체       |                      |                 |
|-----------------------|----------------------|-----------------|
| 1133157 고영애 신용산       | 1133221 박민지 여호수아     | 1133250 김재천 SNS |
| 1133195 김명철 송파        | 1133222 송용원 대전 서누리   | 1133251 박미경 SNS |
| 1133196 문우영 도곡        | 1133223 이현정 서대문      | 1133252 최소린 SNS |
| 1133197 박인수 인천 믿음     | 1133224 신기남 허브       | 1133253 이승우 SNS |
| 1133198 김은경 수원 남누리    | 1133225 이지윤 허브       | 1133254 나현덕 SNS |
| 1133200 박기현 양재        | 1133231 정세나 요셉       | 1133255 강수현 SNS |
| 1133201 김성미 인천 소망     | 1133232 허예은 요셉       | 1133256 최형인 SNS |
| 1133202 양혜진 대전 동누리    | 1133233 서정훈 요셉       | 1133257 현채영 SNS |
| 1133204 이명윤 관악금천      | 1133234 박하영 요셉       | 1133258 오다희 SNS |
| 1133206 김윤희 이촌        | 1133235 김민채 요셉       | 1133259 강현덕 SNS |
| 1133207 김진상 인천 소망     | 1133236 배은영 양재       | 1133260 권유진 SNS |
| 1133208 김지혁 인천 소망     | 1133237 송은진 분당A      | 1133261 목수아 SNS |
| 1133209 정승철 인천 사랑     | 1133238 김청아 분당B      | 1133262 송주명 SNS |
| 1133210 최금선 영등포구로     | 1133239 김윤정 서초C      | 1133263 박보미 SNS |
| 1133211 이호영 인천 소망     | 1133240 김홍광 하나       | 1133264 박은서 SNS |
| 1133212 윤영상 인천 소망     | 1133241 김지원 Gil      | 1133265 송한라 SNS |
| 1133214 김아람 성동광진      | 1133242 이석한 Gil      | 1133266 백성욱 SNS |
| 1133216 CUI DAN 중국어예배 | 1133243 함상엽 강동 믿음    | 1133267 심지혜 SNS |
| 1133217 ZHU JUN 중국어예배 | 1133244 강영수 부천 희락    | 1133268 권예나 SNS |
| 1133218 최블라디슬라브 인천 소망 | 1133245 안연주 부천 Dream | 1133269 최솔라 SNS |
| 1133219 소지혜 여호수아      | 1133246 고은별 W        | 1133270 상은령 SNS |
| 1133220 권나은 여호수아      | 1133247 허동진 W        | 1133271 이소희 SNS |
|                       | 1133248 최재경 W        | 1133272 조용주 송파  |
|                       | 1133249 장일환 SNS      | 1133273 박세민 허브  |

▶ 바로 잡습니다

2018년 12월 30일자 신문 6면에 실린 기사 중에 구자현 선교사의 귀국이 지난해 10월, 유진이의 출생지가 한국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7~23절

우리를 소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하신 분입니다.  
살아있는 그분께 소망을 둘 때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했던 형편은 결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절망적이었고, 예레미야에게도 절망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절망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절망입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늘 비현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살아가는 절망입니다. 이것을 ‘연약함의 절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며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하나님께 반항하며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죄 때문에 경험하는 절망입니다. 이것을 ‘반항의 절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고,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우리는 늘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끊임없는 산소가 공급되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끊임없는 소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돈키호테는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가 더 정확한 진리입니다.

“소망이 있는 한 살아있습니다.”

## 예레미야가 발견한 소망

“그분이 내 심령에서 평안을 빼앗으셨으니 내가 행복을 잊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내 인내와 소망이 여호와로부터 사라져 버렸다. 내 고난과 내 방황,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 하소서.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17~20절).

그들은 행복을 잊었고, 인내와 소망이 사라져버렸고, 방황했고, 비통함과 쓰라림 속에서 낙심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를 대변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예레미야가 21절에 가서는 “낙심 가운데 소망을 발견했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반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 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인애하심이 끊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끊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큼니다”(21~23절).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서 발견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내려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사라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것을 해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대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은 고난 속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절망으로 변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발견한 소망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소망, 고난 속에서 절망으로 빠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소망을 발견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참된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소망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거짓된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달래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잔혹하고 냉혹할 정도로 진실을 말씀 하셨습니다. 진실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직면한 이후 소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소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을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소망을 갖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최악의 모습을 지적받으면서

최선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절망의 근원인 죄를 해결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약속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고 고통 받으실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하셨지만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절망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만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고백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 시기를 빕니다”(롬 15:13).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땅의 죄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의 최악의 습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원리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늘의 신비스러운 역사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베드로서는 다른 단어로 이 소망을 고백했습니다.

## 믿음의 미래시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 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벧전 1:3~4).

베드로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 있는 거룩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목적지를 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

다. 우리는 하늘에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유업이 예비된 하늘의 순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끊어질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롬 8:24~25).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야지 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을까요? 소망은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미래시제가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소망이 가득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망으로 얻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진실을 외면하고 마취시키는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을 통과하지 않은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감추고, 덮어주고, 외면하고, 문제가 없다고 여겨주는 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하신 분입니다. 살아있는 그분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흔히들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반대말도 진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면 고통을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얻을 것이 있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하늘에 영원한 썩지 않는 유업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33년 동안 오지에서 선교한 부부 선교사가 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국어로 말씀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미전도종족을 위하여 인생을 바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다. 그 주인공은 남태평양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의정, 박연화 선교사 부부다. 부부 선교사의 삶 자체가 간증이다. 33년 동안이나 선교했으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고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도대체 그 무엇이 그들의 가슴을 이토록 뛰게 만들었을까?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말씀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 33년 오지 선교 인생, 김의정, 박연화 선교사



김의정, 박연화 선교사 부부(위)와 엘로피 부족 제자훈련학교 1기생들(아래).

지금도 수렵과 채취로 살아가는 부족이 있다. 육로로는 갈 수가 없어서 경비행기를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부족이다. 예수님은 고사하고 글 한 번 배워본 적 없는 원시 부족이다. 한 평생 자국어로 복음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미전도종족 중에 미전도종족이다. 그들은 남태평양 인도네시아 동부에 위치한 파푸아에 살고 있는 ‘엘로피 부족’이다.

#### 엘로피 부족과 사랑에 빠지다

김의정, 박연화 선교사 부부는 지난 33년 동안 엘로피 부족과 동고동락하고 있다. 오지에서 주민들과 똑같이 살면서 성경번역, 제자훈련, 지역개발, 교육 등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엘로피 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모른다.

김의정, 박연화 부부는 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을까? 그런데 처음부터 해외 선교를 꿈꾼 것은 아니라고 한다. 박연화 선교사는 해외 선교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대학시절 CCC에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때 CCC 슬로건이 ‘민족복음화’였어요. 당시 우리나라 국민 15%정도만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저는 국내에도 복음을 전해야 할 국민이 85%나 있는데 왜 해외 선교가 중요할까 생각했어요. 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참 많이 썼어요.”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 묻기도 하고, 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에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해외 선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답을 찾아다녔다.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해외 선교는 반드시 해야겠더라고요.”

부부는 함께 선교사로 헌신했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파푸아를 사역지로 선택했다.

파푸아 일부 지역에는 지금도 신석기 시대 생활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지구상 오지 중의 오지다. 인구는 약 600만 명이고, 면적은 남한의 4.7배다. 250여 가지의 언어를 사용하는 250여 개의 부족이 있다.

김의정 선교사와 박연화 선교사는 파푸아 엘로피 부족을 만난 그날 사랑에 빠졌다. 엘로피 부족을 섬기겠다고 결심하자마자 길을 떠났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엘로피 부족이 사는 곳에 가는 것부터가 고난이었다. 부족 마을을 결정하기 위한 첫 답사 방문을 박연화 선교사는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흔들거리는 경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멀미가 정말 심했어요. 외부사람이 오니까 온 부족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악취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눈동자가 정말 순수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마을을 둘러보는데 한 아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달라는 메시지로 들렸어요.”

러브스토리에겐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엘로피 부족과 김의정, 박연화 선교사 부부는 때로는 상처받기도 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무례하며 큰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 엘로피 사람들을 제 가슴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럽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어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희를 붙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기쁨

분명 3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데 김의정, 박연화 선교사에게는 너무나도 짧았다. 성경 번역에만 전념해도 시간이 부족했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문제들도 있었다. 순수하게만 보이던 주민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언어학자로 비자를 받을 때는 언어 분석 및 논문발표를 해야 하고, NGO로 비자를 받을 때는 지역개발도 해야 했어요. 마을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당시에는 선교사로 비자를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처음 본 엘로피 부족의 눈망울은 정말 순수했는데 마냥 순수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의정, 박연화 선교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엘로피 부족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들의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었다.

“국가 공용어를 쓰는 부족이었다면 성경 번역이 조금 수월했을지 모르는데 이곳은 전혀 다른 말을 쓰고 있었어요. 성경 번역 작업을 처음부터 해야 했어요. 몸짓과 손짓을 섞어가며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언어 구조를 찾아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김의정, 박연화 선교사는 엘로피 부족의 언어로 지금까지 구약 3권, 신약 7권을 번역했다. 또한 제자훈련을 하면서 현지인들을 양육했다. 2007년부터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닌, 현지인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사 비자를 발급받고 공식적으로 현지 교회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선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을 담은 2분짜리 구전성경 이야기 시리즈를 제작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자훈련학교를 개강하면 네 개의 마을에서 주민 10여 명이 찾아오더라고요. 선교사가 계속 이곳에 머물 수 없으니까 현지인 리더를 양육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김의정, 박연화 선교사가 33년 동안 그 험한 오지에 살면서 엘로피 부족을 섬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동력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기쁨이 으뜸이었다.

“세상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리더십들을 각 분야에 세우는 게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것 같아도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더라고요.”

#### 누구나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하다

엘로피 부족이 사는 마을에는 현지인 전도자들에 의해 세워진 현지인 교회가 있다. 많지는 않지만 제법 많은 엘로피 부족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에는 기독교 신앙과 정령숭배 신앙이 섞여있다.

김의정, 박연화 선교사가 요즘 마음이 급하다. 할 일이 태산인데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1년 반 남짓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들의 뒤를 이어 후임 선교사가 사역을 해 나갈 예정이다.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미전도종족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후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는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기고

## 크리스천의 판단(判斷)

## 이성적, 감성적, 영적 판단력을 균형 있게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랑공동체,  
홍보대행사 대표)

내가 대학생이던 80년대, 주한 영국문화원 어학원에 다닐 때 일이다. 몇 개월 과정을 함께 들은 학생들이 버스를 빌려 교외로 MT를 가기로 결정하고 N분의 1로 회비를 거뒀다. 그 중에서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한 분한테는 돈을 건지 않기로 했다. 60세에 가까워 보였던 그분은 매번 같은 점퍼 차림에 허름한 구두를 신고 있어 누가 봐도 실업자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조용히 돈을 걷은 사실을 알고 그분이 말을 걸어왔다.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저희끼리 부담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예요. 그날 버스 빌리는 비용하고 식사는 제가 할게요. 그 돈은 기념품 사는 데 써요.”

충격이었다. 그분을 따라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고급 세단에서 기사가 차 문을 열고 나와 그분을 정중히 모시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알고 보니 한 중견기업의 회장이었다. 드라마 같은 장면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났다. 어떤 경비원은 자신의 인사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한 입주자에 대해 속으로 ‘건방진 금수저’라고 욕을 많이 했는데, 청각장애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웠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공직자들의 멘토 역할을 해온 한 목사님과 최근 ‘판단’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다. 그 목사님은 젊은 시절 우리나라에서 강직하기로 유명한 모 장관의 비서관을 지냈다. 한번은 젊은 공직자가 골프채를 선물로 가져왔단다. 장관은 비서관을 불러 그 골프채를 응접실에서 침실로 옮겨놓으라고 시켰다.

‘방까지는 몇 미터 되지 않는 거리인데 그런 심부름을 시키다니... 더욱이 그런 뇌물을 받을 분이 아닌데...’

비서관은 내심 실망을 금치 못했다. 1년이 흐른 어느 날 장관이 비서관한테 그 젊은 공직자가 승진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고 하자 그날 저녁 그들 부부를 공관에 초대해 저녁식사를 할 테니 각별히 식단에 신경 쓰라고 했다. 그 장관이 힘을 써서 승진한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자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장관은 비서관한테 그 골프채를 침실에서 가져오라고 시키고 초대된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유능한 인재라고 들었네. 나는 필요할 때 골프채를 살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

이니 가져가서 젊을 때 운동 열심히 해 오래도록 나라를 위해 일해 주시게.”

그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 장관은 비서관한테 이렇게 말했다.

“자네, 그동안 마음고생 컸지?”

장관이 표리부동하다고 생각해 사직서까지 제출하려 했던 비서관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끼는 비서관을 교육시키기 위해 1년 동안 말할 수 있었던 기회를 술하게 참아온 장관의 인격에 머리가 숙여져 평생 멘토로 모시게 되었다고 했다. 비서관 출신의 그 목사님은 그 후로 ‘새로 알게 된 사람에 대해 1년 동안은 판단하지 말자’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1년 동안 의지적으로 상대의 장점을 찾아 관계를 맺다보니 1년 뒤에는 부족한 점이 보여도 이미 각인된 장점이 그것을 덮어버린다는 걸 알게 되었다.

본다. 솔로몬은 아마 자기가 자란 따뜻한 엄마의 품을 생각해냈을 것이다. 친엄마라면 어떡해서든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 기회를 감수할 것이고, 친엄마가 아니라면 자신의 체면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이를 희생시킬 것을 알았을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는 성령 충만에서 비롯되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 대언하듯 전달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공감의 능력이 지혜를 더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1930년 뉴욕 법정에서 세기의 명판결이 있었다. 늙었다고 고용해주는 데가 없어 나흘 동안 굶다가 빵을 훔쳤다는 노인에게 판사는 “그건 개인사정입니다. 10달러의 벌금형에 처합니다”라고 판결했다.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재판장이 술렁였다. 판사는 덧붙여 “그리고 이 법정의 판사인 저한테 10



### “선입견, 화려한 경력, 다양한 경험을 내려놓고 냉철하고 겸손한 자세로 판단력 키우는 훈련해야”

## 영적인 통찰력

판단에는 이성적 판단과 감성적 판단이 있다. 칸트는 인식 과정에서 감각과 경험을 중시하였다. 인식의 대상이 먼저 직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되며, 직관에 의해 우리의 정신에 받아들여진 대상의 위상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 규정된다고 했다.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은 선입견을 배제한 지혜로운 통찰력이라 생각한다. 즉, 영적인 통찰력이다. 대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면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축복한다. 지혜를 갖추면 재물과 권력, 사랑과 갈등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명판결 중에서 진모를 찾아준 지혜는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공감능력에 있다고

달라를, 뉴욕 시민들에게 50센트씩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 노인이 굶주려 빵을 훔칠 정도로 굶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한 같은 절도죄가 반복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3선 뉴욕시장으로 부패와 폭력을 몰아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의 판결은 죄에 대해 심판해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과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사랑의 하나님을 연상하게 한다.

## 승자효과의 역기능

지도자의 판단력은 한 기업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러시아는 외세 침략으로 나라를 잃을 뻔한 적이 크게 두 번 있었다. 프랑스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침공에

서 러시아는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거듭되는 연승으로 자만해진 침략국 지도자들의 무모한 판단력 때문에 위기를 모면했다. 두 권력자는 러시아의 추위에 대비한 월동준비나 퇴각로와 보급로 파악 등 기본적인 전쟁 준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승자효과(성공이 성공을 낳으며, 성공해본 사람이 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이론)에 도취돼 승리를 낙관했던 것이다. 리스크를 무릅쓰고 치른 전쟁이나 경쟁, 사업, 프로젝트, 운동경기에서 승리할 때 사람의 몸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출돼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수치를 올려준다. 높아진 도파민 수치는 더 큰 승부를 자극하는 동기를 부여해서 승자효과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자만심에 빠져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사업영역에서 성공한 기업인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일이 허다하다. 100년이 넘는 기업이 적은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대응력의 부재이기도 하나, 무모한 자신감으로 정확한 분석 없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갑의 위치에서 일해 온 사람들이 퇴직 후 사회에 나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사기를 당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나는 30년 가까이 교계 관련한 일을 하면서 한국 교회들이 건축이나 사역 면에서 담대한 믿음이 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방송사 근무 시절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담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해나갔다. 계속해서 큰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이는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이라 믿었다. 각종 행사와 국제 콘퍼런스에서 우수한 팀원들과 일하며 야전사령관처럼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이런 승자효과는 검증된 사람들과 일했던 방송사 근무 시절과는 달리 퇴직 후 사회에 나와 역기능으로 작용했다. 사회는 생각보다 사기성이 많은 일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깊은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강의라는 영역을 열어주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람과 사건에 대한 객관적 판단력을 키워주셨다.

매스미디어에서 멀티미디어 시대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디바이스 활용 시대로, 소통과 커머스가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시대이다. 이성적, 감성적, 영적 판단력을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은 중요한 생존 능력이다. 나의 선입견, 화려한 경력, 다양한 경험을 내려놓고 냉철하고도 겸손한 자세로 판단력을 키우는 훈련은 평생 계속해야 한다. 올해 교회 표어인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처럼 새해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크리스천 영성으로 무장해보자.



작은 예수  
40일새벽기도회

##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 ◆ 12월 29일 토요일

## 기적과 큰 기쁨

행 8:5~17

이재훈 목사

오늘 본문에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더럽고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 마음에 죄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나고, 장애가 치유되는 역사가 사마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 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전 세계에 확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과 머리모만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

람들이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이끌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타협해서 귀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 안에 귀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쫓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영들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님이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표적

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 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계십니다. 모든 기적은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데까지 이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때로는 성령의 기적과 표적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에는 엄청난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순수혈통주의에 사로잡혀 혼혈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배척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병자가 나고, 귀신이 떠

나가고, 사람들이 회복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던 장벽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은 장벽들이 너무 두껍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심리적, 개인적인 장벽과 원한들이 사람의 힘으로 무너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기적과 치유가 나타난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함으로써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다가가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합니다.

사마리아에 임한 이 놀라운 기적과 큰 기쁨의 역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삶속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 ◆ 12월 31일 월요일

## 성령의 열매 (1) 열매를 맺으라

갈 5:22~23

이상준 목사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결실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성령님에게 순복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둘째, ‘기쁨’입니다.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는

영원한 기쁨을 말합니다. 셋째, ‘화평’입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갈등과 문제를 덮어두는 위장된 화평이 아닙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누리는 화평입니다. 넷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단순히 잘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오래 참음은 죄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다섯째, ‘친절’입니다. 친절은 친하거나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나 악인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이야기

합니다. 여섯째, ‘선함’입니다. 인간이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함이 아닙니다. 이 선함은 절대적인 선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일곱째,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덟째, ‘온유’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를 아니 내시고 평온함 가운데 드러나는 주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아홉째, ‘절제’입니다. 나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죄를 범합니다. 스스로 절제가 안 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절제는 성품의 완성입니다. 성령의 열매 완성이자 관계의 완성입니다.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성품이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성령님에게 순복하면 내 안에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마디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성이기에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의 조항을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율법의 조항들을 가뿐히 뛰어넘게 됩니다. 세속주의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 영적인 크리스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1월 2일 수요일

## 성령의 열매 (2) 열매를 나누라

갈 5:22~23

이상준 목사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9절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9가지 열매를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드러납니다. 팀 라헤이는 <성령과 기질>에서 4가지 기질에 대해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피가 끓는 사람입니다. 열정과 사랑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을 전했을 때 3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다혈질 베드로는 사랑도 충만하지만 미움도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담즙질입니다. 담즙질은 의지력이 강한 실패형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문제는 동역자인 마가와 요한을 내치고 버렸습니다.

디모데는 우울질 전형입니다. 우울질은 예민한 완벽주의를 보이는 감성형입니다. 선함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맡긴 목회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민함 때문에 위장병이 생기고 은사를 펼치지 못해 사도 바울의 큰 심경정이 되었습니다.

바나비는 점액질입니다. 느리고 여유가 있는 낙관형 사람입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했을 때 손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착한 마음에 상처를 받아 베드로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기질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 만드신 기질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선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영혼들을 돌보는 사랑이 넘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가와 요한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나누는 것도 나눠줍니다. 열매 맺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따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아낌없

는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면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는 남 좋은 일을 하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주변사람들이 좋습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1호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이 잘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사건 하나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포로로 억눌렸던 유대민족을 이끈 에스더를 찾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시대가 변합니다.



## ◆ 1월 3일 목요일

### 성령의 보내심

행 13:1~4

이재훈 목사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지금 처한 도전과 위기상황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입니다. 둘째, 내가 들은 성령님의 음성이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들은 음성이 과연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지라도 사단의 음성에 속아서 삶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파송을 받아 본격적인 선교여행

을 떠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때는 예배를 드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참된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예배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곱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

과 우리를 가로막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 상처를 치유 받아야 합니다. 죄와 상처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상처의 치유를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셋째,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의 마음은 행하려는 마음입니다. 행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다섯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정직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언의 은사에 속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일차적으로 나 자신(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곱째, 성령님은 신비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

령의 음성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예수회 창시자), 존 웨슬리(감리교 창시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겸손을 ‘거룩한 무관심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개의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유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선교지로 가든, 부하게 되건 가난하게 되건, 고난이 있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만일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안디옥교회를 떠나 키프로스로 가라”는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디옥이든 키프로스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안디옥교회처럼 성령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무관심의 상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 1월 4일 금요일

### 성령의 인도하심

행 16:6~15

이재훈 목사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적이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으로 살게 됩니다. 결국 성령님은 교만한 영혼

들의 삶 가운데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과 평강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을 믿음의 협력적인 요소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감정이 아닌 지식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이성적인 정보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정신적인 사유는 감정에 항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정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정신적인 사고보다 감정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을 잘 살펴봄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안을 느끼거나 기쁨이 없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고 있다면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 지속적으로 불안해했다면 “아멘 말씀대로 될지이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로부터 핍박받아 뿔뿔이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대상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에게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유럽이 복음화 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익숙함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온누리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